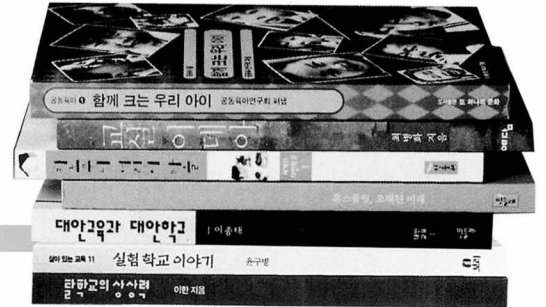


제도권 교육의 울타리 넘어 새로운 교육 꿈꾼다

대안학교, 공동육아, 홈스쿨링 등 제도권 교육 비판한 책들



1990년대 이후 제도권 교육의 울타리 밖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그리 낯설지 않다. 대안학교를 비롯해 탈학교, 홈스쿨링 그리고 공동육아 등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형태로 뻗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기 시작한 이런 움직임은 제도권 교육의 틀에 박힌 획일성과 억압적 장치들에 대한 회의를 넘어서 구체적인 '대안' 찾기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교육=학교’ 라는 인식 바뀌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 책은 1995년 출간된 유구병의 《실험학교 이야기》(보리)다. 이 책은 당시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지은이가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계획한 ‘실험학교’의 밑그림을 보여준다. 그 이듬해인 1996년부터 서울평화교육센터가 펴낸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정유성의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이상 내일을여는책) 등 점점 대안교육 관련책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종태 연구원의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민들레)는 대안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침서이자 안내서다. 오늘날 교육이 ‘속도’ 문명을 가속화하는 도구가 됐으며, 속도문명에 대한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느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지은이는 “경쟁 위주의 학력주의 관행 속에서 대안교육이 얼마나 기존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힌다. 이기문의 《새로운 학교 풍경》(아침이슬)은 ‘추락하는 교사’ ‘흔들리는 교실, 걷도는 아이들과 따돌림’ 등 우리 교육의 우울한 자화상을 돌아보게 한다.

그런가 하면 막연한 의미의 ‘대안’

을 넘어 아예 ‘탈학교’를 선언한 책들도 출간됐다. 《학교를 넘어서》(이 한)는 우리 교육의 온갖 병폐가 학교 자체에서 발생한다며 본격적인 학교해체를 주장한다. 중·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대안교육을 받고 있거나 자퇴를 원하는 ‘탈학교모임친구들’이 쓴 《자퇴일기》(이상 민들레)는 “학교가 더 이상 절대적인 교육공간이 아니다”고 선언한다. 《탈학교의 상상력》(이 한, 삼인)은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을 한국 근대화의 총체적 실패징후로 규정하고, 현재 학생들의 의식 속에 퍼진 저항성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다. 《교실 이데아》(최병화, 예담)는 대안학교에서 겪은 지은이의 경험담으로 그동안 ‘문제아’로 규정됐던 십대들의 모습을 꾸미지 않고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 밖에 대안교육 사례집으로 서머힐 정신과 듀이의 실용적 교육방법론을 접목시킨 새로운 대안학교의 모습을 담은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호리 신이치로, 김은산, 민들레), 《아름다운 학교》(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인간과자연사), 《ET할아버지와 두밀리 자연학교》(채규철, 마가을), 대안교육의 ‘바이블’ 격인 A. S. 니일의 《서머힐》(한국영재교육개발원, 시간과공간사) 등이 나와 있다.

홈스쿨링과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도 높아

대안교육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새로운 길찾기가 시도되면서 ‘가정교육’ 또는 ‘재택교육’이라 불리는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홈스쿨링은 현재 미국 전역은 물론 전세계로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략 1백여 가정

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안교육 전문출판사로 자리잡은 민들레의 《새로운 길을 여는 부모들의 이야기》(민들레편집실 엮음)는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의 사례집으로 국내에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키우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들레의 현병호 대표는 “대안교육은 자율성을 찾는 교육이자, 공교육의 변신을 실험할 수 있는 ‘공교육 변화의 첨병’”이라며, “교육=학교라는 통념을 깨고, 나아가 대안교육=대안학교라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홈스쿨링이 열린교육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열어주는 건 아니다.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선 자녀의 학습에 시간과 정성을 쏟을 만한 부모의 경제력과 지적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면서 공동육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개인이 떠맡아야 하는 육아문제는 일하는 여성들의 발목을 잡기 일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정한 대안교육의 출발점은 공동육아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동육아연구회가 펴낸 《함께 크는 우리 아이》(또하나의문화)는 공동육아의 이념과 철학, 방법론을 정리한 공동육아입문서다. 이 책은 걱정스런 현재의 육아문화를 여러 측면에서 점검해보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시도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국내 여성학 1세대 학자인 김정희의 《눈높이 엄마 꿈높이 아이》(책이있는마을)는 육아 체험담을 바탕으로 육아와 교육현실의 문제 등을 에세이로 풀어냈다. —박순근 기자